

6월 국내매체 보도 동향

K R E I Q U A R T E R L Y A G R I C U L T U R A L T R E N D S I N N O R T H K O R E A

1 경제일반

◆ 북한, 본격적으로 백두산 관광지 개발에 착수

- 외화벌이를 위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주력하는 북한이 백두산 관광지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음.
 - 2015년 4월 백두산 무봉노동자구에 국제관광특구를 설치한 데 이어, 철로와 발전소 등 관광지의 기본인 교통·전력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2015년 6월 5일, 북한의 해산과 삼지연을 잇는 철길 건설 착공식이 2015년 6월 4일 삼지연대기념비 앞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음.
- 북한은 추운 백두산 인근을 관광지로 활성화하기 위해 전력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음.
 - 2002년부터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이 동원돼 건설 중인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1·2호 발전소를 2015년 10월 노동당 창건일까지 완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는 양강도 백암군의 하천인 서두수 상류에 3개의 계단식 발전소로 건설되는 수력발전소임.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양강도 경제특구개발총국 관계자를 인용해 "무봉노동자구를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중국 측 투자자들과 관계자들이 삼지연에 들어와 현장 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 노컷뉴스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을 인용해 동원된 건설 인력은 각 도별로 새로 인원을 선발해 조직된 '백두산관광철도 돌격대'로 모두 2만 명으로 조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

식통은 "8총국과 공병국 군인들이 동원돼 '삼자연비행장' 확장 공사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음.

- 백두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북한은 기존 공군사령부 산하 전술 및 시험훈련 비행장이던 '삼자연비행장'을 '조선고려항공사'에 이관시켜 민간공항으로 개편하고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북한, 백두산 관광지 개발 '시동'...교통·전력인프라 마련", 2015.06.05., 노컷뉴스, "北, 백두산 지구 본격 개발..."철도, 공항 공사 시작", 2015.06.05.

◆ 북한, 태양열 발전 독려

- 북한은 태양열과 같은 자연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난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북한 매체들은 태양열 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역을 치켜세우고 국제적인 자연에너지 이용 동향을 소개하는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음.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15년 5월 6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풍력, 지열, 태양열을 비롯한 자연에너지(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자연에너지 이용을 독려했음.
 - 평양방송은 '수십 개 빛 전지판'을 설치해 사무실 조명을 켜는 황해북도 체신관리국과 태양광 전지판을 통해 양수 동력 설비를 돌리는 버섯 공장을 '모범 사례'로 소개했음.
- 평양에서 2015년 5월 열린 제15차 5·21 건축 축전에는 태양열, 풍력, 지열을 이용한 '녹색형 살림집 형성 설계'가 출품됐음.
 - 조선중앙통신은 '태양열을 이용한 살림집 난방기술'을 선보이며 주택 벽에 '산화철 흑색 칠감'을 발라 태양빛을 잘 흡수하게 하고 거품시멘트 보온재를 사용하면 겨울철 방 안 온도를 15~18도로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중국 홍콩글로벌실업투자집단유한공사 호등 총경리는 북한의 '분체식 태양열 발전소' 200개에 대한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북한이 태양열 발전소를 건설·운영하고 있음을 시사했음.
- 2013년 9월 촬영된 구글 위성사진을 보면 북한의 라선 경제특구에 있는 황제호텔 건물 앞에 140m에 달하는 태양열판 355개가 설치된 모습이 나타났음.
- 2015년 4월 로이터 통신은 북한 여행을 알선하는 고려여행사 관계자를 인용해 "평양 가정집 창문에서 목격되는 태양광 패널이 2014년보다 3배가량 늘었다"고 전하기도 했음.
 - 로이터 통신은 북한 시장이나 백화점에서 20와트짜리 태양광 패널이 35만원(암시장 환율

기준 약 44달러) 정도에 팔린다고 보도했음.

연합뉴스, "'전력난 극복하자'...북한, 태양열 발전 독려", 2015.06.05.

◆ 남-북 전력생산능력 격차 12배

- 2015년 6월 8일 통계청 및 발전업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남한의 발전설비 총 용량은 8만 6,969MW로 북한 7,243MW의 약 1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음.
 - 2003년 남한과 북한의 전력설비 총 용량은 각각 5만 6,053MW와 7,772MW로 7배 차이가 났음.
 -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남한의 발전설비 용량은 55%(3만 9,016MW) 증가했고 북한은 역성장(-529MW)하였음.
 - 발전소 구성의 질적 측면에서도 남북한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남한은 원자력과 화력, 수력발전의 비율이 24%, 65%, 7%이지만, 북한은 수력과 화력발전만으로 모든 전력 생산을 감당하고 있음.
 - 화력발전소의 경우에도 남한은 석탄과 천연가스, 유류 등 다양한 연료를 사용하지만 북한은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음.
 - 대신 북한은 연료비가 들지 않는 수력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꾸준히 높이고 있음. 전체 발전설비에서 수력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북한이 59%로 남한의 7%에 비해 매우 높음.
- 매일경제, "南-北 전력생산능력 격차...12배 사상 최대", 2015.06.08.

◆ 평양 주민들, 퇴근 후 장사하는 야간 골목시장 확산

- 평양시 소식통은 2015년 6월 16일 "2015년 3월 초부터 평양시내 전철역과 살림집(아파트) 주변 곳곳에 퇴근 후에 주민들이 직접 나와 장사하는 새로운 형태의 번개시장인 '골목 장마당'이 형성되고 있다고 CBS노컷뉴스에 밝혔음.
 - 소식통은 "야간 골목 장마당은 오후 6시부터 시작해 밤 10시쯤까지 주민들이 남새(채소)와 과일, 의류, 가재도구 등을 판매하거나 물물 교환하는 형식으로 거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야간 장마당은 장소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여 명이 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노컷뉴스, "[단독]평양 주민들, 퇴근 후 장사 '야간 골목시장' 확산", 2015.06.17.

◆ 북한, 100년만의 가뭄에 전력난 심각

○ 2015년 6월 22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온라인 매체 데일리비스트,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가뭄으로 인해 심각한 전력 부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2014년 겨울부터 이례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강과 댐 수위가 낮아진 탓에 수력발전소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전력 생산량의 60% 이상을 수력발전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로이터통신은 2015년 5월 30일 유엔의 북한 상주조정관 굴람 이사크자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뭄으로 상당수 수력발전소 가동이 중단돼 북한의 전력 생산량이 50%가량 줄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012년 북한의 전력 생산량은 190억 kW로 한국(5,000억 kW)의 5%에 미치지 못함.

-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013년 북한의 발전 가동률은 전체 발전설비 724만 kW 대비 약 34.8%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음.

• 그는 북한의 전력난 원인은 대내적으로는 자력갱생의 폐쇄적 에너지 정책 추진과 이로 인한 설비 노후화, 에너지원 공급 감소, 발전 및 송배전 체계의 불안, 중공업 우선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구조 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음.

연합뉴스, "북한 '100년만의 가뭄'에 전력난도 심각", 2015.06.23. 노컷뉴스, "北 경제난 벗어나려면..." "2022년까지 264만 kW 필요", 2015.06.24.

◆ 북한, 외화 확보를 위한 채널 다양화 시도

○ 북한은 북중 무연탄 교역량이 감소함에 따라 외화 보유량이 감소하였고 수출 품목을 다양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전해짐.

- 의류는 2013년 1,432만 9,000달러(약 157억 원)에서 2014년 8,074만 5,000달러(약 888억 원)로 463.5% 증가했음.

- 수산물도 2013년 1억 1,380만 8,000달러(약 1,251억 원)에서 2014년 1억 4,325만 7,000달러(약 1,575억 원)로 25.9% 늘어났음.

- 북한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9개 경제개발구의 외국자본 유치를 유도하는 등 온라인으로도 외화 확보에 애쓰고 있음.

- 북한은 2013년 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를 통해 유튜브에 경제개발구

외자 유치를 위한 홍보 영상을 올린 바 있음.

- 조선중앙TV가 2015년 6월 16일에 방송한 북한과 우즈베키스탄의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전의 평양 김일성경기장에는 개성 고려인삼, 평양 건재공장 등 북한 기업 광고판들이 대거 등장했음.

연합뉴스, "'북한, 무연탄 수출감소로 외화난...외화벌이 채널 다양화'", 2015.06.25.

◆ 북한, 라선경제특구에 국제공항 건설 계획

- 러시아 스포트니크 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연해주를 공식 방문한 박창남 라선시 인민위원회 해양토지부 부장은 2015년 6월 25일, "라선경제특구에 국제공항을 건설할 계획이 있다"고 주장하며 "러시아와 연결되는 다리도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힘.

- 박 부장은 "새로 건설될 국제공항 활주로는 너비 60미터, 길이 3킬로미터로 공항이 완공되면 러시아와의 관계 발전에 실질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컷뉴스, "北, "라선경제특구에 국제공항 건설 계획"", 2015.06.26.

1.1 대외무역

◆ 북한, 2014년도 무역적자 전년 대비 41% 증가

- KOTRA가 2015년 6월 5일 발표한 '2014년도 북한 대외무역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북한의 대외무역(남북 교역 제외) 규모는 2013년 대비 3.7% 늘어난 76억 1,000만 달러(약 8조 4,700억 원)로 나타났음.

- 수출은 1.7% 감소한 31억 6,000만 달러, 수입은 7.8% 증가한 44억 5,000만 달러였음.

- 이에 따라 무역적자는 12억 8,000만 달러로 2013년보다 41% 늘었음.

- 한편 중국에 대한 의존은 심화됐음. 2014년 북한의 대중국 무역 규모는 68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음. 무역 의존도는 89.1%에서 90.1%로 상승했음.

- 수출 품목별로는 석탄 등 광물성 연료가 전체의 37.2%로 가장 많았음. 의류 및 부속품 수출이 23.7% 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음. 수입 품목은 광물성 연료가 4.7% 줄었음. 데도 1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음.

- 2014년 남북 교역 규모는 전년 대비 106.2% 증가한 23억 4,264만 달러로 사상 최대였음.

동아일보, "북한 무역적자 41% 급증... 2014년 총 8조4700억 교역", 2015.06.06.

◆ 북-미 교역 증가, 대부분 인도적 지원

- 미국 상무부는 2015년 4월 북한과 미국의 교역액이 26만 7,000달러로 2015년 3월의 7,000달러에 비해 38배 늘었다고 보도했음.
 - 2015년 4월 교역 내용에 따르면 미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실적은 없고 전액 북한으로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음.
 - 통계상 수출로 잡혔으나 대부분 민간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인도적 지원품목임.
-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북한과 미국 간 교역액은 47만 7,000달러로 나타났음.
 - 인도적 지원을 위한 품목이 40만 5,000달러로 전체의 84.9%를 차지했음.
 - 나머지는 닭·오리 등 가금류 5만 6,000달러, 설탕 1만 6,000달러 등이었음.
 연합뉴스, "북미, 4월 교역 38배 급증...대부분 인도적 지원", 2015.06.09.

◆ 북한-러시아 2015년 1분기 수출입 규모 대폭 감소

- 2015년 6월 19일 코트라가 러시아 관세청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한 '2015년 1분기 러시아·북한 교역 동향'에 따르면, 북한의 2015년 1~3월 대러 수입은 1,700만 달러로 2014년 동기에 비해 30% 감소했음.
 - 수출은 57만 달러 규모로 전년 동기보다 44%가 줄었음. 수입에서는 '제분'과 '조제식료품'이 각각 93%, 73% 감소했음.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오일 및 가스'는 112%가 늘었음. 이 품목은 유연탄이 대부분으로 수입액은 1,400만 달러였음.
 연합뉴스, "북한-러시아 올해 1분기 수출입 규모 급감", 2015.06.19.

◆ 몽골, 라진항을 통해 한국에 석탄 수출 예정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015년 6월 20일 로이터통신 등을 인용해 몽골의 석탄채굴회사가 북한 라진항을 통해 한국에 석탄을 수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음.
 - 2015년 6월 19일 몽골 석탄채굴회사 샤린 골(Sharyn Gol JSC)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삼목물류와 석탄 수송 계약을 맺었음.
 - 계약에 따라 석탄은 몽골에서 4,000km 떨어진 북한 라진항까지 열차로 운송된 후 배를 이용해 한국으로 옮겨지게 될 예정임.
 연합뉴스, "'몽골, 라진항 통해 한국에 석탄 수출'", 2015.06.20.

1.2 대외경제협력

◆ 북한 경제학습 고찰단, 인도네시아 방문

○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UBC)의 캐나다-북한 지식교류협력프로그램(KPP)은 2015년 6월 13일부터 20일까지 '북한 경제학습 고찰단'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한다고 2015년 6월 1일 밝혔음.

- 북한 경제학습 고찰단은 북한 내각 대외경제성·재정성·외무성 등 정부 관계자와, 조선경제개발협회 회장, 김일성종합대학과 인민경제대학 교수진, UBC 교수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되었음.

- 이들은 인도네시아의 경제, 무역, 금융 개발 현장 견학을 통해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전략과 경험 등을 배울 계획으로 알려짐. 인도네시아 학자, 경제 관료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 북한 경제학습 고찰단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주관하는 KPP는 북한과 캐나다간 각종 지식교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10년 설립되었음.

- KPP는 2011년부터 매년 북한의 경제·경영·무역·재정분야 교수 6명을 UBC에 초청해 6개월간의 연수 기회를 주고 있음.

- 2013년 10월과 2014년 5월에 두 차례에 걸쳐 평양에서 경제특구 개발을 주제로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했으며, 2014년 4월 세계 각국 경제전문가로 구성된 학술대표단이 북한 경제특구 현장을 참관하는 행사를 마련했음.

연합뉴스, "북한 정부·학계 전문가들 인니 방문...경제개발경험 학습", 2015.06.01.

◆ 북한 신압록강대교 공사 중단 상태

○ 커티스 멜빈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2015년 6월 4일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RFA)에 출연하여 구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2015년 3월까지 신압록강대교의 북측 도로 공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음.

- 멜빈 연구원은 "북한은 4km에 달하는 이 도로를 신의주-평양 간 국도와 연결하기로 했지만, 공사는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 그는 "북한과 중국 간 경제 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신압록강대교가 북측의 공사 중단으로 개통이 지연되는 것은 그만큼 냉랭해진 북중 관계를 보여준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북한 신압록강대교 공사 중단상태...북중관계 반영'", 2015.06.04.

◆ 한국, 북한 반대로 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 무산

- 국토교통부는 2015년 6월 4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제43차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회의에서 한국 가입안이 의제로 상정됐지만, 북한의 반대로 가입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 OSJD는 러시아, 중국, 북한과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28개국의 철도협력기구로,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중국횡단철도(TCR) 등 대륙철도 운영을 위해서는 가입이 필수적임.
한국경제, "북한 반대로...한국, 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 또 무산", 2015.06.05.

◆ 러시아, 북한과 농축산 분야 협력 확대

- 러시아 극동 지역에 위치한 동물사료 제조사인 '스파스키베이컨'사는 북한 황해북도에 돼지 사육을 위한 연락사무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

- 코트라는 2015년 6월 23일 러시아의 농업 전문 웹사이트인 '아그로인베스터'를 인용해 "'스파스키베이컨'사는 북한의 돼지 사육 회사인 '사리원'의 설비를 활용해 북한에서 돼지를 사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스파스키베이컨사'의 북한 진출은 2015년 4월 24일에서 27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북러 정부 간 무역·경제·과학·기술 협력 위원회'의 회의에서 공식 논의되었으며, 이 회사 세르게이 디르카치 대표는 러시아 극동개발부가 인솔한 사절단의 일원으로 행사에 참가했음.

- 이번 북러 공동 축산 프로젝트는 북한에서 사육된 가축을 러시아 시장에 공급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으며, '스파스키베이컨'사는 돼지를 사육해 러시아 시장에 공급할 것으로 예정되어있음.

- '스파스키베이컨사'는 2014년 9월 또 다른 북한 회사인 미림순마사와 러시아 프리모르스키 크라이 지역에 북한에 동물 사료 공급을 위한 합작 회사를 설립한 바 있음.

- '북러 정부 간 무역·경제·과학·기술 협력 위원회'에서는 러시아의 아무르, 프리모레, 하바롭스크 지역에서 러시아 정부가 북한 측에 토지를 제공하고, 제 3국의 투자를 받아 북한 농업 기업을 설립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전해짐.

노컷뉴스, "러시아, 北과 농축산 분야 협력 확대...사리원에 사무소 설립", 2015.06.24.

◆ 북한, 적도기니에서 3조 3,000억 규모 정보통신사업 수주

-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아프리카 적도기니를 방문하여 30억 달러(3조 3,000억여 원) 규

모의 정보통신사업을 수주했다고 전해짐.

- 북한 소식통들은 이번에 수주한 사업은 적도기니 대통령의 경호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7개 주요 도시에 폐쇄회로(CCTV)와 통신 설비를 설치하고 위성으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대표부는 2014년에도 적도기니 몽고모시의 보안 체계 구축 계약을 맺은 바 있음.
연합뉴스, "'북한, 적도기니서 3조3천억 규모 정보통신사업 수주'", 2015.6.26.

◆ 러시아, 북한 라선시에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 러시아가 북한 라선시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러시아 에너지 회사인 '극동 전력 시스템'의 세르게이 톨스토구조프 사장이 밝혔다.

- 러시아 스푸트니크 뉴스에 따르면 톨스토구조프 사장은 "북한에 적극적인 전력 수출과 화력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 우선 북한 라선시에 70MW를 공급하고 이후에는 350MW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또 "북한 내 발전소는 루스기드로그룹 소유가 될 예정이며, 화력발전소 주변에는 풍력발전단지도 건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컷뉴스, "러시아, '北 나선시에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2015.06.27.

◆ 러시아, 북·러 접경에 대북송전용 풍력발전소 4기 건설 계획

- 영국의 풍력발전 전문 월간지 '풍력(Wind Power)'은 최근 "러시아 극동 지역 최대 전력 회사인 '라오 에스 보스토크'가 북·러 접경지역에 총 40MW 용량의 풍력발전소 4기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 이 월간지는 라오 에스 보스토크사 전략 투자 담당 책임자의 말을 인용해 "발전소가 북한 라선경제특구와 연해주지역에 각각 2기씩 들어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 총 5,500만~6,200만 달러가 투입될 이 공사는 2016년 또는 2017년 시작될 예정임. 생산된 전력은 전량 북한으로 수출된다고 이 월간지는 보도했다.

조선일보, "러 월간지 '러, 북·러접경에 대북송전용 풍력발전소 4기 건설계획'", 2015.06.30.

1.3 개성공단 임금인상 관련

◆ 정부, 2015년 3월분 개성공단 임금지급 49개사에 경고

- 정부는 정부의 지침을 지키지 않고 3월분 북한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49개사에 '경고' 조치를 취한 것으로 2015년 6월 3일 알려졌다.
 - 개성공단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2015년 6월 3일 "통일부는 3월분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 49개사에 정부 방침을 추가로 위반하면 제재를 하겠다는 취지의 경고 공문을 5월 말경 발송했다"고 밝혔다.
 - 3월분 임금을 납부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모두 우리 정부 방침에 따라 기존 월 최저임금 70.35달러 기준으로 북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다고 남측 관리위에 신고했음.
 - 하지만 이중 상당수는 장려금, 상금 등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월 최저임금 74달러에 맞춰 지급했을 것으로 파악되었음.
 - 정부의 방침대로 최저임금 70.35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납부한 기업 중에는 북측의 요구에 따라 최저임금 74달러 기준 차액에 대해 연체료를 낼 것을 약속하는 확인서에 서명한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당초 통일부는 '기존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북측이 요구하는 확인서에 서명하지 말라'는 정부 방침을 위반한 기업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태업과 잔업거부 위협 등 북측의 고강도 압박이 지속되는 특수한 상황이었음을 고려해 경고 조치로 마무리했음.
 - 한편,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2015년 3월 1일부터 발생한 노임의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추후 협의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는 확인서 문안에 2015년 5월 22일 최종 합의했음.
 -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대부분 2015년 5월 25일에서 5월 30일, 미납 3월분 임금과 4월분 임금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음.
- 연합뉴스, "정부, 3월분 개성공단 임금지급 49개社에 '경고'", 2015.06.03.

2 식량사정 및 식량 가격추이

◆ 북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알곡 생산 감소, 식량난 우려

- 조선중앙통신은 2015년 6월 16일 "100년 만의 왕가물(가뭄)으로 인해 각지 농촌이 심한 피해를 받고 있다"며 "2015년 6월 8일 기준, 전국적으로 모내기가 이뤄진 44만 1,560

여 정보의 논 중 13만 6,200여 정보의 벚모들이 말라가고 있다"고 밝혔음.

- 이어 "피해가 큰 지역은 곡창지대로 알려진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도 그리고 함경남도"라며 "황해남도에서 모내기 면적의 근 80%, 황해북도에서는 근 58%의 논이 마른 상태에 놓여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 또한 "기상수문국의 통보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비가 내렸지만 황해남도와 황해북도에서는 거의 내리지 않았다"며 "저수지의 최대 수위가 낮아지고 강하천도 거의 마른 상태여서 모내기한 벚모뿐 아니라 강냉이를 비롯한 다른 알곡 작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통신에 따르면 북한 지역의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은 135.4mm로서 평년(182.6mm) 대비 74.2%에 그쳤음. 특히 2015년 3월의 경우에는 7.7mm의 강수량을 기록하며 기상관측 이래 두 번째로 적은 양을 보였다고 전했다.

- 정부 역시 2015년 북한 지역 강수량이 2014년 대비 56.7% 감소했다며, 특히 곡창지대인 황해도와 평안도의 2015년 강수량이 평년(1981~2010년 평균) 대비 각각 46.9%, 61% 수준으로 모내기에 막대한 차질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음.

뉴스1, "北도 극심한 가뭄...알곡 생산 감소 등 식량난 우려(종합)", 2015.06.16.

3 농림수산 일반

◆ 북한의 김정은, 종자연구농장 시찰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종자연구농장인 제810부대 산하 1116호 농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15년 6월 1일 보도했음.

- 1116호 농장은 종자연구소와 시험공장, 농작물 시험·재배 포전 등을 갖추고 육종 연구와 종자 개발 등을 하는 종자연구농장임.

- 김 제1위원장은 2015년 5월에도 제810군부대 소속의 신창양어장, 석막대서양연어종어장, 낙산바다연어양어사업소 등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칭찬했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한 바 있음.

한국경제, "김정은 북한 제1위원장, 종자연구농장 시찰", 2015.06.01.

◆ 북한, 2015년 강수량 평년 대비 74% 수준

- 2014년 북한 지역에 심한 가뭄이 든데 이어 2015년에도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15년 6월 3일 보도했음.
 - 통신은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평균강수량은 135.4mm로 2014년 같은 기간 강수량보다는 좀 많았지만, 평년의 182.6mm의 74.2%에 불과했다"고 밝혔음. 특히 2015년 3월 강수량은 7.7mm로 기상 관측 이래 두 번째로 적었으며, 주요 영농시기인 5월 강수량은 40.1mm로서 매우 적었음.
 - 도별 강수량을 보면 양강도와 강원도, 황해남북도는 80~151mm로 평년의 53~67% 수준이며, 함경남북도, 평안남북도, 평양시, 남포시는 108~160mm로서 평년의 77~86%, 자강도는 163.5mm서 평년의 90.8%로 집계됐음.
 - 이 기간 주요 강하천유역의 평균 강수량은 적었으며, 특히 동서해안 강하천의 강수량은 평년의 66~69%정도에 불과했음.
 - 조선중앙통신은 황해남도 연백벌과 재령벌 등 주요 벌지대의 평균강수량도 매우 적으며 이미 파종한 알곡작물과 지금 한창인 모내기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 가뭄이 가장 심한 지역은 양강도와 강원도, 황해남북도로 나타났으며, 통신은 "평양시와 남포시, 평안남도, 함경남도의 대부분 지방에서도 심한 가뭄이 들고 있으며, 덥고 건조한 기상조건으로 인해 전 지방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노컷뉴스, "北, 100년 가뭄 계속 "올해 강우량 평년의 74%", 2015.06.03.

◆ 북한, 가뭄에도 벼 모내기 77% 실적

- 북한 지역에 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벼 모내기 실적은 77%선에 들어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15년 6월 4일 보도했음.
 - 통신은 "각지 농업 부문 일꾼들과 근로자, 지원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이러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며 "평안북도의 협동농장에서는 기본면적의 벼모내기를 끝냈다"고 전했다.
 - 또한 황해남도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불리한 일기 조건을 이겨내며 모내기를 다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특히 배천, 연안, 벽성, 재령, 봉천군의 농장에서 마른논 씨레치기를 하고 많은 면적의 물보장 조건이 어려운 논에 포기마다 물을 주면서 모내기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음.
 - 평양시 지역 협동농장에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모내는 시기를 바로 정하고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보장하며 모내기를 일정대로 내밀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015년 6월 3일, 2014년에 가물(가뭄)이 든데 이어 2015년에도 가물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음.
 - 통신은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은 135.4mm로 2014년 같은 기간 강수량보다는 좀 많았지만, 평년 182.6mm의 74.2%에 불과했다"고 밝혔음.
 - 노컷뉴스, "北, "왕가뭄속에 벼 모내기 77% 실적"", 2015.06.04.

◆ 북한, 소 매매·도축 허용

-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는 "북한 당국이 소 사육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매매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며 "김정은이 축산업을 활성화시켜 인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2015년 6월 3일 보도했음.
 -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협동농장에서만 기를 수 있었던 소를 이제는 개인도 사육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고 팔 수도 있게 됐다"고 이 매체에 전했다.
 - 소식통에 따르면 협동농장에서 부립소(농사에 이용되는 소)로 등록된 소는 국가의 재산이기 때문에 매매와 도축을 전면 금지하고 있음.
 - 그러나 이 같은 부립소 외에 개인이 직접 키우는 소는 이제부터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음.
- 조선일보, "北, 소 매매·도축 전격 허용", 2015.06.04.

◆ 북한 김정은, 생물농약연구소 시찰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15년 6월 6일 "김정은 제1비서가 2015년 6월 6일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 산하 평양생물기술연구원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음.
 - 평양생물기술연구원은 여러 작물의 병해충을 구제하는 데 쓰이는 생물농약 등을 연구 개발하고 생산하는 과학연구·생산기지라고 소개했음.
- 김정은은 "평양생물기술연구원에서 농산과 축산·과수·원예·원림사업에 절실히 필요한 효능이 높고 인체와 토양, 생태 환경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21세기 생물농약을 연구 개발한 것은 자랑할 만한 성과"라고 평했음.
 - 그는 "생물농약을 공업적인 방법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무균화·무진화·무인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 것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발전된 몇 개 나라들만이 독점하고 있는 생산 기술까지 확립했다"며 "생산 과정에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들도 만들어내

고 있는데 대단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생물농약연구소 시찰한 北 김정은 "연구진 업어주고 싶다", 2015.06.06.

◆ 북한, 가뭄 극복 노력 독려

- 노동신문은 쿠바의 물 절약 작업과 물 소비량 통제 노력, 스리랑카의 우물 건설을 가뭄 대책으로 소개했으며, 러시아는 농업에 '물기흡수제'를 도입해 물을 절약하면서 소출을 20~70%나 높였다고 전했다.

- 이밖에도 각국이 물 보존방법 도입, 물 원천 발굴 사업, 가물견딜성(내한성) 강한 품종 심기 등 일련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15년 1~5월 전국 평균 강수량이 135.4mm로 평년의 74.2%에 그쳤으며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조선에서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음.

연합뉴스, "북한, 각국 가뭄 대책 소개하며 극복노력 독려", 2015.06.11.

◆ 시들어가는 협동농장과 대비되는 개인농장 농작물

- 2015년 6월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 가뭄이 심각하지만 개인농장과 협동농장의 농작물 상태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음.

- 북한 당국이 군인·학생을 총동원하였으나 협동농장의 농작물은 시들어가고 있지만 개인농장의 농작물은 싱싱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임.

- 이 매체에 따르면, 북한은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 직원의 10%를 농촌으로 파견하고 중학생, 대학생, 군인을 가뭄 지원에 동원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음.

- 하지만 함경북도 소식통은 총동원에도 협동농장의 농작물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고 있다고 전함. 이 소식통은 "협동농장의 가뭄 대책은 한낮에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 반면 개인농장은 가뭄 이전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작황이 좋다고 전했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개인 밭과 (협동)농장 밭은 천지차이"라며 "개인들은 협동농장에 만들어 둔 우물물을 밤새 자신의 뽕기밭에 퍼 나른다, 물도둑이 늘어 경비를 세워야 할 지경"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北극심한 가뭄에 협동농장 농작물은 다 시들었지만, 개인농장은 '멸짱',이유는?",

2015.06.15.

◆ 북한, 물 부족으로 농업에 염도가 높은 대동강 물 동원

○ 가뭄에 시달리는 북한이 물 부족으로 '소금기가 있는 물'을 모내기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15년 6월 17일 "2015년 남포시 와우도구역의 농사가 최악의 조건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염도가 높은 대동강 물로 모를 키워내고 관리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와우도구역에서는 장마철을 통해 저수지에 물이 충분히 확보되면 모내기를 시작하려 했으나, 2015년 5월로 들어서면서 심한 가뭄으로 모판에 물을 충분히 대줄 수 없게 되자 대동강 물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음.

- 농장 관계자들은 '민물에서 기른 모를 짠물에 적응시킨다면 일정한 기간 생육을 보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짜내고 이를 시험해보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 또한 보름 동안 소금기가 있는 물을 맹물에 섞어 모판에 댄 뒤 점차 염도를 높여 나가면서 모를 키우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매일경제, "북한, 가뭄 심각 '소금기 있는 대동강물'도 동원", 2015.06.22.

◆ 북한 압록강 수풍댐, 준공 72년 만에 최저 수위

○ 중국 동북지역과 북한 전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압록강 유역 수위가 크게 내려가 압록강 수풍댐 수위가 1m로 낮아져, 준공 72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 2015년 6월 23일 라오닝성 단둥해사국에 따르면 최근 비가 내리지 않아 수풍댐 수위가 평년에 비해 10여 미터 내려갔으며, 댐 저수지의 유람선 운항이 제한받고 있음.

세계일보, "극심한 가뭄으로 압록강 수풍댐 수위 1m, 준공 72년만에 최저", 2015.06.23.

◆ 북한, 2013년·2014년 최대 곡물 생산량 달성

○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2013년과 2014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각각 530만 톤 정도라고 발표하였음.

- 북한은 2014년 봄 가뭄을 겪었음에도 2013년과 2014년 모두 수십 년 만에 최대의 수확량을 달성하면서 1980년대 후반 이래 처음으로 자급자족의 수준에 근접했다고 전해짐.

- 과거 가뭄 시기 곡물 생산량은 연간 약 300만 톤 수준이었음.

연합뉴스, "'100년만의 가뭄'...북한서 최악의 상황 발생할까", 2015.06.24.

◆ 2013년에 도입된 포전담당제가 이뤄낸 실적

○ 지영수 북한 농업과학원 농업경영연구소 실장은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와 인터뷰에서 "기존 분조에서 모내기 등에 20~30일 걸리던 것을 지금은 10~15일에 해치우고, 50여 일 걸리던 농사결속(마무리)을 열흘 만에 끝내고 있다"고 밝혔다.

- 지 실장은 분배몫(개인이 처분하는 몫)과 수매몫(정부에 판매하는 몫)의 비율에 대해서는 "강냉이 15포기 가운데 5포기는 분배몫, 나머지는 수매몫으로 된다는 식"이라며 예시를 들었음.

- 그는 "제도 실시로 협동농장에서 사회주의 분배 원칙과 인연 없는 평균주의가 퇴치되고 분배몫과 국가수매량도 늘었다"며 "이러한 경험에 토대해 2015년 전국 모든 협동농장에서 제도를 실정에 맞게 더욱 심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북한, 포전담당제 성과 실증..."왕가뭄에도 알곡증산"", 2015.06.28.

◆ 온실 농사꾼들, 채소 대신 김정일화(花) 재배

○ 북한에서 '김정일화(花)' 수요가 늘어나고 각종 채소값이 하락함에 따라 개인 온실에서 채소를 재배하던 주민들이 김정일화 재배로 전환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15년 6월 28일(현지 시각) 보도했음.

- RFA는 북수의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개인 온실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중국산 채소 유입으로 채소 가격이 폭락하자 채소 농사를 포기하고 너도나도 값이 비싼 '김정일화(花)' 재배에 나섰다"고 전했다.

-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에서 개인 온실 농사로 유명한 지역은 평안남도 안주시·속천군, 함경북도 명천군·은덕군·회령시임. 이들 지역에서는 석탄이 많이 나 온실 온도 유지에 필요한 연료비가 적게 드는 까닭에 온실 농사가 성행하고 있음.

- 이곳 주민들은 개인 온실에서 오이와 수박, 토마토 등을 재배해 팔아 돈을 벌어 왔는데, 중국산 채소 때문에 채소값이 폭락하면서 연료비조차 건지지 못했다고 전해짐.

• 2014년 기준, 개인 온실에서 재배한 오이는 1kg에 7위안(약 1,300원)이었는데 2015년에는 3위안(약 500원)으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짐.

• 이에 최근 개인 온실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채소 농사를 포기하고 김정일화 재배에 나섰다"고 북수의 함경북도 소식통이 전했다.

- 이 소식통은 "북한 4인 가족의 한 달 생계비가 300위안(약 5만 4,200원)인데, 김정일화는

꽃 직경이 15cm인 화분 하나에 500위안(약 9만 400원), 꽃 직경이 20cm 이상이면 부르는 게 값"이라며 "온실을 가진 개인들은 김정일화 열두 포기만 팔아도 1년은 넉넉히 먹고 살 돈을 벌게 된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北 온실 농사꾼들, 채소 재배 그만두고 너도나도 '김정일화' 재배", 2015.06.29.

◆ 북한 김정은, 평양 채소농장 방문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평양 장천남새(채소)전문협동농장을 본보기로 농촌 문화혁명을 일으키자고 촉구했음.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15년 6월 30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사회주의 농촌 문화건설을 위해 마련된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찾아 칭찬했다고 보도했음.

-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은 평양 시민들에게 사계절 신선한 채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그는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본보기, 불씨로 해 농촌문화혁명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자는 것이 당의 결심이자 의지"라며 평양시 인근 농장을 이 농장처럼 꾸리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모든 주택들에 태양열물가열기와 태양빛전지를 설치하고 집집마다에 과일나무들도 심어놓음으로써 농촌마을의 과수원화를 실현했다"고 평가하고 "특히 문화주택들을 훌륭히 건설했다"고 칭찬했음.

매일경제, "北 김정은, 평양 채소농장 격찬..."농촌 문화혁명 일으키자", 2015.06.30.